

한전공대 설립 러 과학단지 모델 도입 검토

김영록 지사, 스킨코보 혁신센터 방문 의견 교환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고향 찾아 우호 교류

전남도가 한전공대 설립·운영 과정에 러시아 과학단지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유럽을 순방 중인 지난 11일(현지 시각) 러시아 최대 과학 첨단기술단지인 스킨코보 혁신센터를 방문, 한전공대 설립·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김희천 한전 부사장, 한전공대 광주전남 범시도민지원위원회 고문인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등과 함께 스킨코보 혁신센터에서 아르카디 드브르코비치 스킨코보 재단 이사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티롤주 인스브르크를 방문, 고향인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한센 병 환자들과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다 고향으로 돌아간 마리안느 스티거(85세·왼쪽 세번째)와 마가렛 피사렉(84세·왼쪽 두 번째) 두 간호사를 만나 소록도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간호사는 60년대 초 소록도에 찾아와 한센병 퇴치와 한센인 인권향상 등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펼쳤다. (맨 오른쪽) 티롤주 군터 플라터 지사. <전남도 제공>

지자체-한전공대가 공동 개발·운영하는 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로 성장시키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게 한전 구상이다.

전남도는 또 지난 13일(현지시간) 소록도 한센인을 위해 헌신한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티롤주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다.

전남도는 이날 김 지사와 오스트리아 티롤

주 군터 플라터 주지사와의 회담을 거쳐 신재생에너지와 관광산업 등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하자는 내용의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전남도는 또 전남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40여년을 봉사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노벨평화상 추천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어촌뉴딜 300' 공모 전남 70개 마을 신청

해수부, 12월 말 100개소 선정

전남지역 15개 시, 군 70개 어촌마을이 해양수산부의 '2020년 어촌뉴딜300 공모'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와 신안 등 전남 15개 연안 시군의 70개 마을이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공모에 신청서를 냈다. 시군별로는 여수 12개소, 신안 10개소, 진도 9개소, 완도 7개소, 무안 6개소, 해남 5개소, 고흥 4개소 등으로, 사업비는 1곳당 평균 100억원 규모로 전체 사업비는 7061억원이다. 어촌뉴딜 300은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2023년까지 5년간 3조135억원을 투입하는 향후 어촌 개발사업이다.

전국 300곳의 어촌·어항을 선정해 마을을 현대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 어촌 혁신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하도록 하는 게 사업 취지다. 2019년 공모에는 전국 70개 어촌이 선정됐고 전남에서는 낙후한 소규모 항포구와 배후어촌 26개소(37%)가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다. 전남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시설, 문화·관광시설, 지역 소득 증대사업 등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어촌·어항종합개발사업을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면·발표평가를 진행한 뒤 11월 22일까지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말 100개소 내외를 최종 발표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22일까지 '친환경 교통주간' 운영

광주시는 '세계 차 없는 날' (9월22일)을 맞아 16일부터 22일까지 시민들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친환경 교통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세계 차 없는 날'은 1997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기념일로, 이번 행사는 저탄소 녹색 교통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전국 기관에서 '함께 걸어요' (Walk together)를 주제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16일부터 20일까지 시내 주요 교차로 5개 지역에서 매일 퇴근시간대에 '편하게 걸자! 안전하게 자전거 타자!!'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티켓, 티셔츠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UCC를 제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19일을 '승용차 없이 출근하는 날'로 지정해 청사 내 승용차 출입도 통제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 지자체 특별교부세 29개 사업 238억 확보

'블루 이코노미' 사업 탄력

전남도의 역점 프로젝트 '블루 이코노미' 관련 사업을 비롯한 시·군 현안사업 상당수가 올 하반기 정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19년 하반기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에 전남도 본청과 21개 시군의 29개 사업, 238억 원이 포함됐다. 전남도 본청 사업의 경우 블루 이코노미 관련 사업인 천연물 원재료 연계처리시스템 구축사업이 포함됐다.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천연물 가공시스템 등을 구축하는데 특별교부세 20억원이 배정됐다. 그동안 단순 생산 판매에 그쳐 부가가치가 낮았던 천연물을 표준화·규격화해 고품질 의약품 원료로 활용하는 기반을 갖춘다. 영산강 강변도로 가로 숲 조성 사업에도 18억원이 배정됐다. 강변도로 일원에 가로 숲과 조망 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영산강의 풍부한 역사 문화 경관 자원과 연계한 생태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도내 22개 시·군 중 21개 시·군의 27개 사업에도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10억원 이상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시군 사업은 목포 세라믹 산단 진입도로 개설(10억원), 나주 농어촌도로 209호선 확장·포장(10억원), 고흥 전통시장 환경개선(10억원) 등이다. 강진 교통약자 운송편의시설 설치(10억원), 해남 작은영화관·청소년문화센터 건립(10억원), 영광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15억원), 진도 옥도 연도교 개설(15억원) 등에도 반영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할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농민도 농민수당 받는 길 열려

김익주 시의원 조례 발의 지역산품권으로 연 2회 지급

광주지역 농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발의됐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 의원(광산1)이 최근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광주시 농민수당 조례안은 수당 지급대상과 시기, 금액, 방식,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이거나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광주에 주

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촌에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수당은 연 2회 지급되 금액을 정하지 않고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토록 했다. 전남과 전북지역 농민수당 지급 추이와 지급액 등을 비교하면서 결정할 수 있다. 광주 농민들이 수당으로 받은 돈을 의무로 유출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역산품권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 가족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익주 의원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농민단체에서도 주민정원 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민수당 지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며 "광주 농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농민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전체 1만380 농가 중에서 약 9000여 농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남 일부 지자체처럼 60만원씩 지원하면 연간 500여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미래 성장동력 발굴 경쟁력 확보 모색

10월 1일 순천대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혁 교육로드쇼'

전남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오는 10월 1일 오후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혁 교육로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남 주력산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사회의 변혁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진행된다. 김영욱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

부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문경수 핀플래이 콘텐츠담당 이사, 유명만 한양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강연에 이어 관객들과 함께하는 토크쇼 형태로 추진된다. 김 부장은 '사람을 이해하는 사물인터넷(IoT)'을 주제로 강연하고 윤 대표는 '에너지의 주인이 되면 바뀌는 것들'을 주제로 청중들과 만난다. 문 이사는 '변혁의 시대, 잠든 호기심을 깨워라'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인간지성'에 대해 강의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역대급 스타일
#태평양급 공간
#렉스톤 20년의 노하우
#빈틈없는 안전성

크고 확실한 행복



2020 G4 REXTON 탄생

2020 G4 렉스톤 출시 기념 밸류업 프로그램

- ◎ 5년/10만km 보증기간
- ◎ 아이리버 블랙박스 + 프리미엄 티팅
- ◎ 옵션 장착 지원 100만원



울창한 체인 메쉬 뉴 라디에이터 그릴



광활한 태평양급 공간



No.1 초고장력 프레임의 안전성



빈틈없이 지켜주는 9개 풀에어백

● 2WD 자동 7단: 복합 10.5km/l [도시주행 9.3km/l, 고속도로 12.2km/l] 배기량: 2.157cc [공차중량: 2,070kg | CO2 배출량: 186g/km | 4등급] ● 4WD 자동 7단: 복합 10.1km/l [도시주행 9.0km/l, 고속도로 11.8km/l] 배기량: 2.157cc [공차중량: 2,180kg | CO2 배출량: 194g/km | 4등급 [G4 렉스톤 5년] ● 2WD 자동 7단: 복합 10.5km/l [도시주행 9.3km/l, 고속도로 12.2km/l] 배기량: 2.157cc [공차중량: 2,060kg | CO2 배출량: 186g/km | 4등급] ● 4WD 자동 7단: 복합 10.1km/l [도시주행 9.0km/l, 고속도로 11.8km/l] 배기량: 2.157cc [공차중량: 2,170kg | CO2 배출량: 194g/km | 4등급]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대리점이 참신하고 유능한 영업인력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아래 해당 판매점에 연락바랍니다.

광주점	광주중앙 629-0003	서광주 383-3434	광주광안 952-3330	광주첨단 971-0990	광주영동 655-4001	광주백운 233-2311	광주운암 573-8900
전남점	순천중앙 723-7100	목포중앙 277-8000	순천 745-3666	여수 883-1800	목포하임 285-7576	광양 791-0071	나주혁신 331-1500
화순점	371-3555	장흥 863-2600	나주 334-2727	영암 473-3458	강진 433-3100	해남 537-3100	광성 395-0007
담양점	383-3811	완도 554-4545	영광 353-9500	보성 852-2892	서광주 761-8900	무안 454-0099	고흥 835-5050
진도점	642-3888	함평 324-3800	마수구면 642-1400	구례 782-9300			